

문화산책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에 많은 시민이 궁금해한다.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하나로 합하는 문제를 초월하여 우리 지역의 앞날을 결정하는 미래산업의 전망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결정이다. 광주와 전남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며,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다. 두 지역이 분절된 상태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모든 산업이 ‘점(點)’에 머물지만, 통합이라는 ‘선(線)’을 통해 ‘면(面)’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현재 AI산업, 모빌리티산업, 반도체산업,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광주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설정이다. 그러나 산업은 도시 하나의 힘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연구와 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실증 공간, 생산 기반, 에너지와 물류 환경까지 함께 갖춰

행정통합·미래산업, 시민으로 완성되는 광주

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전라남도와의 행정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광주는 연구개발과 인재, 데이터와 기술이 모이는 도시다. 반면 전남은 에너지 자원, 농수산업, 산업단지, 넓은 부지와 실증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두 지역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각자의 강점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해 하나의 산업권으로 움직인다면, 광주는 기술 중심 도시로, 전남은 확장과 실현의 공간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이는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복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안겨준다.

AI산업은 이러한 통합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남이 가진 농업, 어업, 에너지, 환경 데이터는 광주의 AI 기술과 결합될 때 새로운 산업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다. 스마트 농업,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재난 예측,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AI 활용 사례다. 이는 단지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이다. 모빌리티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차와 미래차 기술은 실제 도로와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이 중요하다. 광주의 미래차, 자율주행 기술은 전남의 광활한 도로 환경, 항만·공항·물류 인프라와 결합될 때 실증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베드이자 산업 플랫폼으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여 시민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반도체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산업은 고급 기술 인력 유입 뿐만 아니라 장비, 유지관리, 생산 인력 등 다양한 일

자리를 만들어낸다. 헬스케어산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 돌봄, 데이터 관리 등 폭넓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AI와 결합된 헬스케어산업은 광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산업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가?’ 하는 문제다. 행정통합과 산업 육성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에게는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야 하고, 중장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노년층에게는 의료와 돌봄의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통합은 산업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의 통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교통망, 교육과 문화시설이 광역 차원에서 연계된다면 시민의 생활 환경은 넓어지고 선택지는 많아진다.

출퇴근 시간 단축, 의료 이용의 편리함, 자녀 교육의 환경 개선은 행정통합이 시민의 삶에 주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다. 우리가 말하는 ‘부강한 광주’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커진 도시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도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이다. 산업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통합은 그 수단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구조가 된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장밋빛 미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통해 시민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지금 필요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상상력이며, 미루는 태도가 아니라 준비된 결단이다. 미래 산업과 시민의 삶이 함께 성장할 때, ‘부강한 광주’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기고

길강목

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행정학 박사



광주에 부임한 지 꼭 1년. 이제 소임을 마치고 이 도시를 떠난다.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것은, 광주가 단지 근무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새로 배우게 한 ‘가치’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 첫발을 디뎠을 때, 광주에서는 낯설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의 일상 속 태도와 공동체의 신뢰가 낯선 이를 자연스럽게 이웃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 경험은 행정이 책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교본이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광주를 찾은 국내외 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찾았다. 전일빌딩과 ACC, 호남신대 선교사 저택에 남은 현대의 기억은 광주가 민주주의와 세계성을 함께 걸려온 도시임을 또렷이 보여주었다.

그렇게 같은 길을 되짚은 횡수만도 서른 차례를 넘는다. 그때마다 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탄 자국이 남은 외벽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이었음을 말했고, ACC의 열린 광장에서는 광주가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 대화하는 도시임을 실명했다. 전일빌딩의 상흔과 망월동의 고요, 그리고 ACC에 흐르는 일상의 풍경은 행정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무언의 교과서였다.

광주는 늘 ‘국가’란 무엇이며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게 했다. 이 도시에서 이민행정은 저출산의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을 넘어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는 과제와 마주한다.

지난 1년,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새로운 시민을 맞이했다. 그 순간은 서류를 건네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 책임과 가치의 시민공동체로 확장되는 장면이었다. 민주주의의 굵아마다 청년과 시민이 함께했던 광주라는 공간에서 국적을 수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선언처럼 다가왔다. 이는 중앙의 제도와 지역의 실천이 맞물리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현상이었다.

고려인마을의 골목을 걷면 낯도 잊히지 않는다.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눈빛에는 조국을 향한 오래된 그리움과 오늘을 살아가는 결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이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정착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성의 문제다. 이민정책은 체류 관리에 머물지 않고, 국적 취득·교육·주거·일자리·지역 참여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를 설계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지금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AI와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국가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만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붙잡는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살 만한 공동체’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기억을 자신으로 시민성을 걸려온 도시이며, 그 힘으로 새로운 전환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

“들은 다듬을수록 빛나고, 공동체는 품을수록 강해진다.” 이 문장은 광주에서 체득한 진실이다. 도시는 떠나지 만, 광주가 가르쳐준 것은 오래 남는다. 낯설을 감차 안던 따뜻한 정서, 다름을 품는 현대, 그리고 사람들 중심에 둔 미래의 감각. 가장 아픈 역사가 가장 성숙한 시민성을 낳아온 도시, 광주가 광주답게 더 큰 나라의 내일을 비추는 등불로 남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며 떠난다.

취재수첩

‘대한’과 예비순위 사이에서

정재정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추운 겨울날, 얼음낚시를 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대한’(大寒). 오방색 화가로 알려진 오승운 화백의 초기작이다.

1973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대상이 유력했던 이 작품은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오지호 화백이 아들의 그림에 대상을 줄 수 없다고 해 특선에 머물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결과를 떠나, 그 판단은 미술계에 공정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최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음악분야 심사위원과 선정자가 직계혈족 관계여서다. 심사위원의 아들은 생애 최초 분야 지원대상 12명 안에, 딸은 청년예술인 분야 예비순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 기피서를 제출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문화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예술인이 ‘0’에 가까워 예비순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 실제 선정자는 1명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비순위 제도의 존재 이유를 짚어보면 ‘의미가 없다’는 해명은 역설적이다. 예비순위를 뽑는 것은 누군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사업 포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예비순위에 오른 결과를 가버려 여길 수 있는 것인가.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 탈락자들에게 예비순위는 단순한 차순위 이상의 의미지 않을까 싶다. 조금만 더 가쁜 달을 수 있는 자리, 다음 기회를 준비해볼 최소한의 신호 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예비순위의 상징성과 공정성은 결코 가볍

지 않다. 지원자가 물론 상황에서 한 단계의 기회라도 더 줄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없었는지 문제가 되는 이유다.

문화행정은 규정과 시스템 위에 작동 하기에, 제도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해명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숫자와 규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창작의 세계는 신뢰 위에서 유지되고, 그 신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 형성된다. 심사에서 ‘이해관계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드리운다면, 결과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해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지호 화백의 선택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들의 기회를 제한했지만, 그 판단은 한국 미술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선택으로 남아서일 터다. 현재의 문화행정이 반드시 이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자원을 둘러싼 공정성의 기준은 ‘문제가 없는 나’가 아니라 ‘의심받을 여지가 남지 않는다’에 더 가까워야 한다.

이번 논란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역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 어디까지 투명해야 하고, 예비순위와 같은 장치가 어떤 철학 위에서 운영돼야 하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사설

남도장터 ‘공공형 온라인몰’ 대표주자

전남도가 출자해 설립한 농수축산물 온라인 종합 쇼핑몰 ‘남도장터’가 고공 행진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59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2024년보다 101억원(21%)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계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며 공공형 온라인몰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다른 쇼핑몰에서의 위탁·연계 판매가 아닌 직접 판매하는 자사몰 매출도 전년 대비 39%나 성장한 184억원을 기록했고 판매 수수료 수익금도 6억원을 돌파했다.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운영비 대비 매출 저조, 물류·마케팅 역량 한계, 상품 구축 부족 등 자체적 운영 쇼핑몰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남도장터의 이러한 성장에는 지난 2022년 12월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상품,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게 큰 역할을 했다.

농어민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운영되는 이곳에는 현재 1250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3만6000여 개 상품이 입점해 있는데 원산지 표시나 식품위생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퇴출되는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정도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한 매출 증대보다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들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상생 모델’을 구축해 온 것도 여기에 한몫했다.

실제로 남도장터는 지난해 취약계층 6000명에게 16억원 규모의 친환경 경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했고 영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 통해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북 어가를 위해 집중 판로 지원을 펼쳐 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때문인지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최근 실시된 ‘2025 남도장터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 만족도는 82.3%, 재구매 의향은 90.0%에 달했고 입점업체 만족도는 94.0%, 입점 유지 의향은 99.0%에 달할 정도다.

남도장터가 앞으로도 농어민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받는 국민 쇼핑몰이 되길 바란다.

광주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비결은

광주 남구가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를 활용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71억35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모금액이 불과 4억2775만원이던 곳이 1년 만에 무려 16.7배나 늘어난 모금액을 거두는 비약적 성장을 한 것이다. 이 모금액은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순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2위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남구 공직자들의 공이 가장 컸다.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 사업 중에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시행한 것이다.

실제 남구는 지난 한 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8건의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에 지역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뉴욕 공연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이 모였고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2억1200만원이 모금됐다.

사적동 도시재생사업인 ‘시간우체국’ 사업에 2억4300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수영클럽 지원 사업도 목표액 3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7300만원을 모았다.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닌, 기부금에 ‘사회적 가치’를 입힌 스토리텔링 전략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여 지정기부사업으로만 11억원을 모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 제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자, 교역기부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담례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다변화전략을 추진한 게 주요한 것이다.

고향사랑e음·위기브·웰로 등 민간 플랫폼 3곳과 협업 채널을 구축,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증정하는 등 시의성 있는 이벤트를 펼친 것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남구가 모금액의 30%인 21억원 상당을 담례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 40여곳의 업체가 공급에 참여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나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